

---

저자 (Authors)	최철
출처 (Source)	<a href="#">국어국문학 110</a> , 1993.12, 333-335 (3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10</a> , 1993.12, 333-335 (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국어국문학회</a>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501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5011</a>
APA Style	최철 (1993). "금기창(琴基昌), 신라문학(新羅文學)에 있어서의 향가론(鄉歌論). 국어국문학, 110, 333-33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7 11:3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書評〉

## 琴基昌,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

琴基昌 교수는 1917년 생으로 우리식 나이로 따지면 이른 일곱살이다. 전공한 쪽은 의학으로 일본 의과 대학과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학업을 닦으셨고, 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하셨다.

이같이 琴교수의 전공은 의학이지만 다 아시다시피 1982년에 「韓國詩歌의 研究」를 펴 내어 琴교수의 국문학 특히 한국시가 연구에 크게 관심을 갖고 연구했음을 알리었다.

「新羅文學에 있어서의 鄉歌論」은 1993년 7월에 간행된 것으로 여기에 실린 향가 작품론 14편 논문은 주로 1991~1993년 사이에 연구된 것이며, 천수대비가(1987), 원왕생가(1988), 혜성가(19888) 세 편만은 1987~8년에 쓴 것이다.

우선 금교수께서 의학대학 교수를 정년퇴임한 후(1982) 노 교수로서 더욱 주 전공과는 다른 향가문학 연구에 이같은 업적을 남기었다는 사실을 먼저 새겨 둘 필요가 있다.

실로 금교수의 향가론은 의학도가 연구한, 未壽를 바라보는 70세 후반에 이룩한 연구 결과라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琴교수의 향가론은 「삼국유사」 소재의 14편만을 국한해서 연구한 것으로 서론을 포함해서 전 16장으로 짜여졌다.

서론에서는 신라 향가의 연구를 통시적인 축에서 개관하는 한편 다른 축에서는 이를 공시적 유형적인 관점에서 향가연구의 실상을 종합화 하였다.

금교수는 향가 연구사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여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연구성과를 자리매김 하였다.

- 제1기(1900~1929) 해독과 해석의 준비기
- 제2기(1930~1949) 문학적 연구의 여명기
- 제3기(1950~1959) 표기법 체계의 모색기
- 제4기(1960~1969) 종합적 연구기
- 제5기(1970~1979) 새로운 연구 방법의 탐색기
- 제6기(1980~현재) 향가 연구를 둘러싼 제문제

서론에서는 주로 향가 연구의 중요 업적을 정리 소개 하였으며 특히 관심을 표명한 부분은 향가 해독법 문제였다.

금교수의 저서에는 향가 연구에 대한 개별적 업적에 대한 평가 해설 보다는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종합화하여 전체로서 향가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살피는데 비중을 두었다.

제2장에서 제15장까지는 「삼국유사」에 적힌 향가 14편을 각 작품마다 한 장씩 독립화시켜 작품론을 시도 했다.

먼저 해독법에 있어서는 신라시기 한자의 음,訓을 해석하는 논증이나 근거와 법칙을 만들어 체계화시켜 독자적인 틀속에서 논지를 전개 해석했다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업적, 특히 小倉進平, 양주동, 지현영, 김선기, 서재극, 김완진, 홍기문, 정열모 등의 해독법을 바탕 삼아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향가 작품을 읽어나갔다. 이 점 때문에 금교수의 향가해독법은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뚜렷한 독자성 있는 입론이 설정되지 않아 평범속에 부실함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도 되었다.

한편 「삼국유사」 향가 14편의 해당 설화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이들 설화 역사적 사실, 神異的 전설, 靈異的 전설로 대별하여 설화의 속성과 그 성격을 해명하였다. 노래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대응 방식에 따라 구조를 도식화 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죽사리 길흔 이에 이샤매 멈홀이고(生)  
나눈 가늠다 말스도 묻니르고 가늠닛고(死)  
어누 마술 이룬 비르메(生) 이에 데에 떠달 님다비(死)  
흐든 가재 나고(生) 가는 곧 모돌온더(死)  
아야 미타찰애 마지하오(死)  
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生)

모죽지랑가의 해석에도 1행에서 生, 2행에서 死, 3행에서 生, 4행에서 死, 마지막에서는 생사에서의 초탈을 보여 生과 死가 정연하게 對偶를 이루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교수는 향가의 시형을 三句六名 형식을 받아 들여 小倉·양주동 이후 句體로 파악하던 향가시형 논의를 벗어났다.

금교수는, 詞腦歌 중에는 三句六名의 형식을 가진 嗟辭 詞腦와 차

사 사녀보다 두 행이 부족하고 차사가 수반되지 아니한 短 詞腦가 있고, 그리고 비사녀형 향가인 민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嗟辭 詞腦……안민가, 찬기파랑가, 우적가, 도천수관음가, 원왕생가, 제  
망태가, 혜성가, 원가. 8편

短 詞腦……모죽지랑가, 처용가

非 詞腦……서동요, 풍요, 헌화가(민요), 도솔가

김교수는 향가의 하위 장르를 형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었고 각 향가 작품론에서는 이 형식에 따라 구조를 해체 해석하였다.

「균여전」三句六名の 해석은 이미 지현영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三句六名體를 곧 嗟辭 詞腦歌體로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三句는 사녀의 3장 구성을 말하는 것이며, 각 장은 각기 2名씩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민요류의 형식은 一句二名體로, 그리고 短詞腦는 三句四名體로 보았고 모죽지랑가와 처용가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三句六名の 해석은 향가 시형 논의에서는 줄곧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필자는 최행귀가 균여 보현가를 한시로 번역하면서 밝힌 三句六名の 斯腦詩形은 바로 斯腦歌의 嗟辭를 지적한 것이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삼국유사」의 一然 역시 노래왕 조의 도솔가 “始作兜率歌 有腦格”이란 글귀에서 斯腦의 詩形은 嗟辭임을 밝힌 바 있다.

쥬교수의 향가 연구는 의학을 전공했던 미수(未壽)를 바로 앞둔 노 교수의 업적이란데 주목이 되고 또한 공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향가 해독법에 대한 쥬교수 나름대로의 견해가 밝혀졌으며 향가에 딸린 說話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실과 神異한 전설, 靈異談 등으로 나누어 설화의 성격과 그 자리매김을 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노래말 해석에 있어서도 각 편에 담긴 의미를 논리적으로 체계화 시켜 분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 이 향가론의 업적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태학사 1993. 7)

최 철  
(연세대 교수)